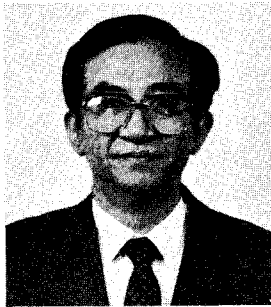


# 축산물 가격안정의 기회로 삼자



김동희

단국대학교 농대 교수

농업 가운데 축산업은 지난 경제발전과정에서 성장산업으로 그 비중이 급신장하여온 바 최근에는 농민자본 보다 도시자본 또는 재벌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가축과 증가축은 생산기간이 길기 때문에 싸이클현상이 불가피하다. 대개 소는 5년, 돼지는 30개월 간격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순환을 겪을 때마다 자본과 기술이 뒤떨어진 부업양축가나 소규모 전업농가는 불황을 이겨낼 힘이 모자라 탈락하고 부채더미에 시달리기 마련이었다. 지난 20년동안 공업화, 도시화과정에서 육류와 우유의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여 그 시장규모가 확대되어 농민들에게 소득 기회를 크게 넓혀 주었다.

이틈에 자유시장경쟁의 원칙을 내세워 배합사료공업은 물론이고 양축업에까지 수출산업을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재벌수준에까지 급성장한 대기업이 뛰어들어서 패배시킴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가속시키고 도·농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따라서 수년전 축산법을 개정하여 부분별한 양돈 규모확대를 규제하고 대규모농장을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그 내용과 시행이 미흡하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모순이 커지자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준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함께 잘사는」공존의 이념을 실현하는 길임에 틀림없다. 한편 농민들은 이를 계기로 협동조직중심의 계열화와 기술혁신에 힘써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수급조정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하여 과잉생산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정부, 나아가서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양기**